

#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818.6	16.8	127,500	3.7	4.5	-1.5	32.9	88.8	42.6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995.1	21.8	429,500	2.0	1.1	7.8	12.7	5.8	4.8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951.2	4.7	93,200	-0.5	20.4	-2.2	-18.2	8.8	7.7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748.1	8.7	177,000	0.9	-0.8	5.0	4.7	11.2	8.3	12	1.1	11.7	13.9
삼성중공업	4,977.0	17.7	7,900	3.7	7.6	0.9	22.1	49.8	24.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94.6	4.5	27,000	2.7	0.6	34.7	94.2	8.3	12.5	0.8	0.8	10.7	6.5
현대미포조선	2,010.0	9.9	100,500	1.5	13.3	-2.0	27.7	21.7	15.7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77.5	6.9	3,560	1.1	9.7	4.9	7.6	71.6	17.9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899.6	22.9	107,500	3.4	20.2	81.0	97.6	19.0	18.5	2.6	2.3	14.6	13.3
두산밥캣	3,328.3	26.7	33,200	2.8	6.1	-5.9	-7.3	12.2	11.5	0.9	0.9	7.4	7.6
현대로템	3,128.0	15.9	36,800	4.8	102.2	145.3	96.3	47.5	32.3	21	20	4.5	6.3
하이록코리아	422.0	49.7	31,000	4.2	30.3	23.5	37.8	14.0	12.8	1.2	1.1	8.8	9.0
성광밴드	399.0	17.3	13,950	-1.4	19.7	14.3	39.8	1,233.2	50.0	0.9	0.9	0.1	1.8
태광	371.0	13.1	14,000	-3.4	8.1	1.8	16.2	83.6	40.8	0.9	0.9	1.0	2.1
두산중공업	2,171.9	11.4	20,400	0.5	27.1	40.7	32.9	18.9	12.3	0.7	0.7	3.9	5.5
두산인프라코어	2,279.2	15.1	10,950	2.3	19.8	5.8	26.0	7.8	7.1	1.2	1.0	16.0	15.1
두산엔진	496.2	4.0	7,140	1.6	23.3	81.2	93.8	-117.3	112.0	0.9	0.9	-0.8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352.3	15.4	44,650	1.8	-4.6	-4.1	-5.9	35.7	26.1	3.5	3.1	9.9	12.5
한화테크윈	1,538.6	14.1	29,250	4.7	9.8	5.8	-17.7	34.8	19.2	0.7	0.7	1.9	3.4
LIG넥스원	944.9	10.6	42,950	2.1	-5.8	-12.3	-28.2	18.6	12.6	1.5	1.3	8.6	11.4
태웅	412.2	4.5	20,600	-1.0	12.6	-4.6	6.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89.4	5.6	7,020	2.5	1.6	-21.3	39.0	-51.6	73.9	22	22	-4.3	3.1
한국기본	296.3	13.9	6,740	-1.6	17.0	0.0	25.7	36.7	19.1	0.9	0.9	2.5	4.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표 및 차트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W: 신조선가 지수 128p, 중고선가 지수 101p(+1 WoW)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8p, 중고선가 지수는 101p(+1 WoW) 기록함. 대우조선해양은 Hunter Tankers에서 30만DWT급 VLCC 옵션 3척을 수주했고, 2020년 2~3분기 인도 예정임. 또 동 선사에서 3척의 옵션을 추가로 수주했고, 옵션 발효시한은 2021년 상반기로 예정됨. (Clarksons)

### ConocoPhillips rules out return to deep waters

오일메이저 ConocoPhillips 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멕시코만 심해를 중심으로 투자를 계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Offshore는 비용이 높다고 판단되며, 내신 Onshore 투자를 늘려갈 계획임. 특히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Shale 위치로 투자를 계획하며, 보유한 Offshore 자산은 매각을 고려함. (Upstream)

### Bulker scrapping hits three-year low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벌크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폐선 활동이 거의 멈추었다고 알려짐. MSI는 올해 1분기 21척의 벌크선이 폐선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15개월 내 최저치임. 주된 원인은 벌크선 운임은 전년동기 대비 spot 기준으로 50%, T/C 기준으로 30% 상승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 현대重 비조선 계열, 자체 신용 부각

현대중공업지주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그룹의 자주사 전환과정에서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7.7조원의 차입금을 연대 부담했으나, 올해 말 2조원 대로 급감할 전망임. 재무구조 개선안이 진행되면 내년 말엔 0.5조원 수준으로 예상됨. 연대 보증채무가 감소하면서 향후 그룹 자회사의 개별 신용도가 부각될 전망임. (더밸)

###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유조선 2척 수주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 수빅 조선소는 벨기에 CMB에서 11.5만DWT급 아프리막스 텅커 2척을 수주함. 인도는 2019년 말로 예정됨.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척당 4,550만달러로 알려짐. CMB 측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단 점에서 끌렸고, 과거에도 수빅 조선소에 발주했음. (EBN)

### 조선 3사, LNG선박으로 '포시도니아' 승전보 울린다

6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인 '포시도니아'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 3사 CEO가 모두 이달말 그리스로 출국할 계획으로 알려짐. 조선 3사는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증가 분위기에 맞춰 LNG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를 이끌어낼 전략이며, 수주마케팅에 적극 나설 계획임. (아시아경제)

### US crude exports send VLCC rates higher

미국 원유수출량 급증에 따라 VLCC 운임이 근래에 최고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짐. EIA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수출량은 하루 256만배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수출증가는 베네수엘라 수출이 감소한 부분을 미국이 채워간다고 알려짐. 현재 VLCC 운임은 작년 11월 초 수준인 하루 3만달러까지 상승함. (Upstream)

### 현대로템, 방글라데시 디젤전기기관차 10량 수주…410억원 규모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약 410억원의 디젤전기기관차 10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2020년까지 전량 납품할 계획임. 이번 사업은 중국과 스페인 주요 글로벌 철도기업들을 제치고 수주함. 현대로템은 방글라데시가 보유한 디젤전기기관차의 17%를 점유했다고 알려짐. (아시아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5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